

## 아빠? 안녕히 가세요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다. 매우 가깝게 지냈으나 자주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친구 아버님 생전에 제대로 방문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며칠 후 환송예배를 가족끼리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꼭 가서 위로하고 싶어 찾아갔다. 그랬더니 정말 가족들과 몇 명의 친척들만이 모여 환송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60세가 넘어서 목사님이 되셨던 아버님이시라 그래도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환송예배 설교 시간이 끝나고 곧바로 조사가 있었다. 친구가 아버지에 대하여 쓴 글을 10여분 읽었다. 그리고 모인 분들에게 어떠한 아버지였는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라고 불렀다. 보통 때에도 그렇게 불러 드린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을 앞에서 그렇게 하니 조금 어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여분이 넘는 시간동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친구의 소리를 들으며 어느새 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50세가 넘는 나이에 90세가 넘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족에 그 아버지는 모두에게 “아빠”였던 것이다. 60세가 된 큰 누나에게도 변함없는 아빠였다.

나는 그 모습은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과연 “아빠”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50세가 넘고 또한 70세가 넘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생활로 부담 없이 그 단어를 쓸 수 있는나?는 것이다. 예식에 맞는 이름은 부르는 것이 오히려 쉬운데, 나의 삶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빠”가 되심을 믿는다. 멀리서 팔짱을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보실 때에 목을 길게 하시고 기다리시며,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릴 때에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혼자라고 할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제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늘 달려가는 삶을 살아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지금도 나를 긴 사랑의 팔로 안으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